

An aerial photograph of a construction site. A white bus is parked on a dirt road. Several workers in safety gear are visible around the site. The background shows a larg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with a crane.

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기자간담회

# “11월 14일 경찰,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”



2015.11.20.오전 11시  
참여연대 아람드리홀

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기자간담회

“11월14일  
경찰,  
이미 공권력이  
아니다”

11월 20일(금) 오전 11시, 참여연대 아름드리홀

## 개요

- 집회시위의 자유란
-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
- 시민을 공격하다
- 생명과 건강의 피해
- 이대로는 안 된다



# 집회시위의 자유란



▲87년 7월 시청 앞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장례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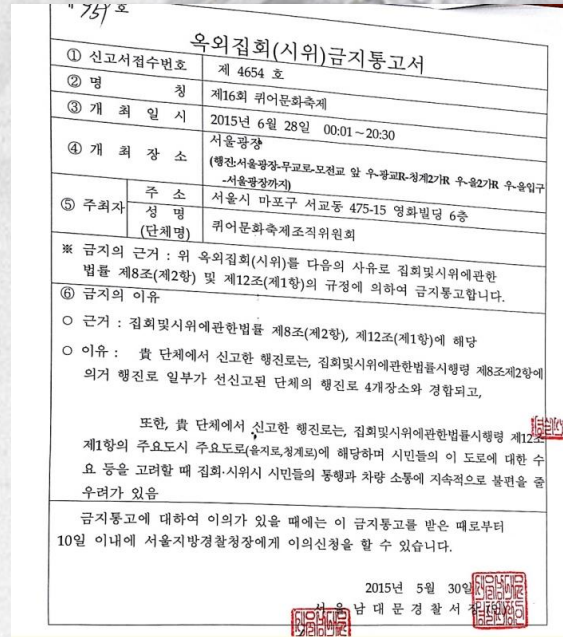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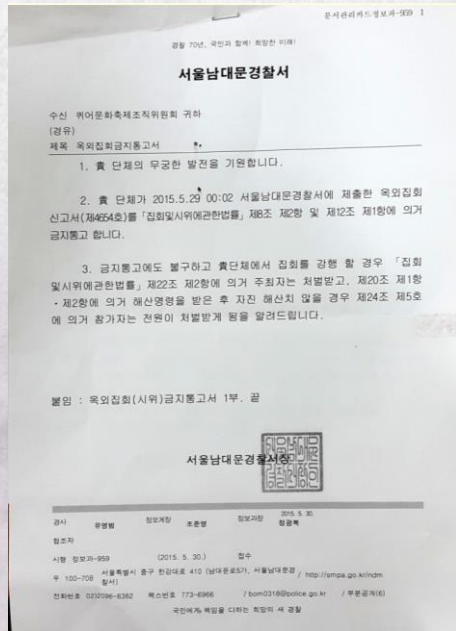
**“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 
불가결한 근본요소”**

(헌법재판소 2003. 10. 30. 2000헌바67·83(병합) 전원재판부 결정)



#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1

## 일단 금지하라 1



## 차도든 인도든 금지

청운동주민센터로 인도를 통해 행진하겠다는 신고, 바로 다음날인 13일 금지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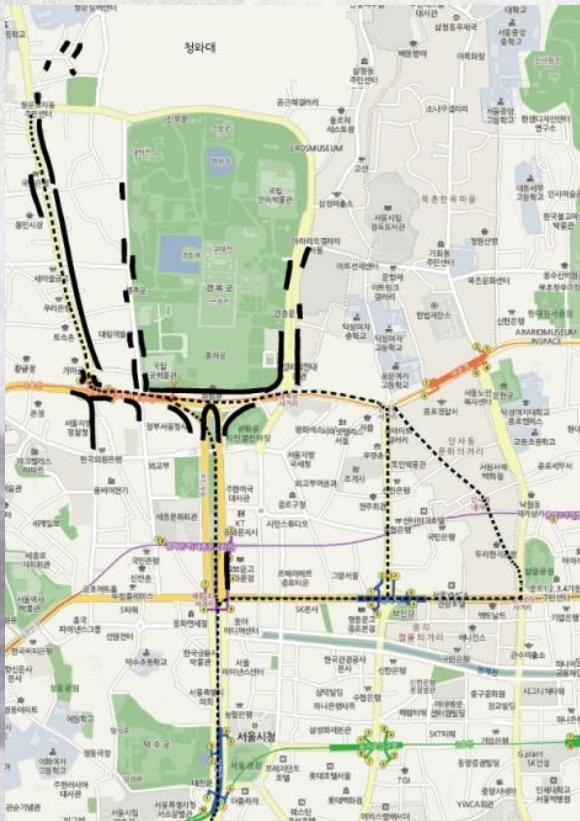


#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1

## 일단 금지하라 2

광화문사거리 이북은  
무조건 금지,  
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

“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 
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”  
(헌법재판소 2003. 10. 30. 2000헌바  
67·83(병합) 전원재판부 결정)



▲ 2014년 4~6월 집회, 행진 금지 장소 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것. 실선은 집회 금지, 점선은 행진 금지

“11월 14일 경찰,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”



#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2

아무리 사소해도



하루전, 5개 부처 장관 공동담화문 엄정대응방침 발표

“아무리 사소해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”

(김현웅, 법무부장관)

“11월 14일 경찰,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”

#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3

## 공격 준비



##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갑호비상

당일 250여개 부대, 2만명 이상의 인원



# 시민을 공격하다 1

## 고지 선점



## 선제적 차단 조치로 차벽을 세우다

- 태평로 : 행진 1시간 전
- 종로구청 입구 : 행진 30분 전
- 살수차 대기



# 시민을 공격하다 2

## 살수 시작

거리에서 있다는 사실이 물포를 맞아야 할 이유?



▲ 종로구청 입구. 집회 참가자들이 도착한 지 10분도 안돼, 어수선하던 사람들에게 살수가 시작되었다

- 종로구청 입구 4대, 태평로 2대, 청계광장 1대에서 3~4시간 동안 쉴새없이 살수 (인권침해감시단)
- 살수차용 물 182톤, 최루액 441리터, 캡사이신 651리터 (서울경찰청,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양)



# 시민을 공격하다 3

## 물대포는 무기

영국에서는 위험한 물대포, 한국에서는 안전하다?



“의학적,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,  
물대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.  
(중략) 나는 물대포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”

(테레사 메이, 영국 내무장관)



## 잠깐! 안전한 물대포는 가능한가?

**“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”**

(헌법재판소 2011헌마815)

물대포 허용되는 한, 규정과 지침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.  
2008 촛불집회 당시 물대포가 문제되자 그해 12월 경찰은 규정을  
손보는데, 놀랍게도 이때 근거리 직사 금지 규정이 삭제된다.



# 시민을 공격하다 4

## 조준하라

▶ 차벽 앞에  
맨몸으로 서있는  
집회 참여자에게  
내리쬐는 물포



▲ KBS 기자를 정조준한 물포

“사람에 대고 쏘는 것은  
죽이려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”

(경찰에 살수차 납품한 업체 전직근무자 증언)



# 시민을 공격하다 5

## 새로운 흥기



집회 참가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흥기 개발,  
위험을 야기하는 전술 개발



# 생명과 건강의 피해



“11월 14일 경찰,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”



# 이대로는 안된다

- “규제당국은 단지 잠재적인 무질서나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는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.” (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해설)
- “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사용에 의해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개방적이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” (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해설)





# 이대로는 안된다

- 누구나 두려워 할 기본권,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해야 하는가?
-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?